

하루를 시작하며



고나해
시인

올해부터 달라진 제주도 농업 정책의 이모저모

3월인데도 날씨가 쌀쌀하고 스산한 봄이지만 농가는 때를 놓칠세라 일손이 분주하다. 그나마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 수가 작년 대비 2만여 명이 추가되는 터여서 계획을 잘 짜고 날씨만 바쳐주면 급한 불은 끄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지만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의 우려로 농가는 또 올해 동안 하루하루 날씨와 온도를 체크해야 한다. 불가능한 대응을 가능성 있게 바꿔보려 가슴 졸이는 나날을 보내기 위한 그 시작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점점 줄어들어 우리나라 인구의 4%에 불과한, 또 거기서 65세 이상 농민이 절반을 넘어버린 농업 정책 중에 올해 달라지는 것들을 살펴본다.

먼저 1인 40만원 지급되는 농민수당은 그 수혜 대상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더라도 농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의 경우도 포함되고, 1인 20만원 지급되는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수혜 대상자는 기존 20세 이상, 75세 미만이던 것이 20세 이상, 80세 미만으로 연령이 확대됐다.

식량 안보가 심각해지는 요즘 식품 안전, 환경 보전, 농촌 유지 등의 공익을 창출하도록 하는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은 구간별로 5% 올랐다.

FTA기금 과수 고품질을 위한 현대화 사업지원 품목이 감귤이던 것

에 키워도 추가됐다. 출하실적이 없는 조합원도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자동 관수 관비, 보온커튼, 난방기, 방풍망, 송풍팬, 비상발전기, 환풍기, 자동개폐기 사업에 차광막이 추가로 포함됐다. 이는 기후변화의 피해를 고려한 것이다. 레드향 등 만감류 재배 시설을 우선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어 작년의 피해를 실감할 수 있었다. 또한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하우스 개보수 전체 지원이 눈에 띄었다.

어쨌거나 농업인에게는 재해가 가장 큰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수해 피해 시설 지원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다. 결국 고소득 시설농가의 운명은 올해의 태풍 여파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이다.

고품질 노지 감귤 격년결실 재

배 지원은 농가당 최대 1ha에 200만원에 그치고 간벌을 유도하는 것은 노지 감귤이 더 이상 대학나무는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한다.

유통 물류비 지원은 지역 농협이나 감협을 통해 출하하는 농업인 대상으로 수도권 물류센터를 거쳐 출하하는 경우 지선 물류비 90%를 지원한다는 품목이다. 유통업체 마진 15~20%를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돌려준다는 취지라고 한다.

도정이 어려운 농업 살림을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과거를 기준으로 설계한 정책이라 전망을 예측하기 어렵다. 차라리 제주농업에 대한 관점을 확 바꿔 글로컬 시대에 제주 브랜드의 가치를 키우는 발판으로 삼아 보다 큰 밑거름을 그리는 데 주력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사설

직무대행의 인사권 행사 적절치 않다

임기 말 인사 강행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의 임기는 이달 7일자로 끝난다. 임기가 만료된 이달 말 대규모 승진·전보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JDC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신입 이사장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3명의 후보를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추천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들 중 한 명을 신입 이사장으로 최종 임명하게 된다. JDC는 신입 이사장 인선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난주 하위직급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이어 이달 말 대규모 인사를 예고했다. 승진은 4급에서 6급까지는 근무연한을, 3급 이상은 성과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규모 인사가 가능한 것은 이사장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신입 이사장이

임명될 때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서다. 직무대행으로서의 인사권 행사가 가능한 것이다. 직무대행의 권한 범위는 통상적으로 현행 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업무 수행은 가능하다. 다만 새로운 사업이나 정책 방향을 크게 바꾸는 것은 제한된다. 특히 예산 집행이나 대규모 인사, 중장기 계획 변경 등은 직무대행 독단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관리형 이사장 체제에서 대규모 인사는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설사 법적으로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사의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보은 인사, 특정 인사 챙기기 등 뒷말이 무성할 수 있다. 조직에 혼란을 초래하고 신입 이사장 인사권 침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양 이사장은 현명한 결단으로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

열린마당

들불축제, 지역과 함께 만드는 상생의 축제



이승환
제주시 관광진흥팀장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2022년 문화관광축제 개최 효과 분석에 따르면, 전국 21개 지역축제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1800억원에 달하며, 415명의 취업과 고용 유발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축제 예산과 방문객 수가 증가하면서 소비 지출도 확대되는 추세다.

올해 제주들불축제 총 예산 18억원 중 약 80%인 15억원이 제주지역 업체를 통해 사용된다.

축제장 기반시설 조성, 교통·주차 인력과 셔틀버스 운행, 지역 예

술인 공연,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경제활동으로 이어지며, 관광축제를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축제 기간 향토 음식점과 푸드트럭 운영을 통해 제주 농수축산물 소비가 촉진되고, 사회적 기업 제품과 농수특산물 할인판매 장터가 마련돼 소상공인과 농축산업인의 소득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관광객 유입 증가에 따른 숙박·식음료 매출 상승,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지역 기업 매출 증가 등의 직접적인 경제 효과와 더불어 지역 이미지 개선, 지역 문화 활성화 등 정성적 효과도 기대된다.

앞으로도 도민과 방문객이 만족하고 소중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준비하며, 지속 가능한 축제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

뉴스-in

“에너지 혁신 도민 삶의 질로 이어질 것”

오 지사, 특구 지정 기대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4일 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3월 소통과 공감의 날’ 행사에서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통한 제주형 에너지 혁신과 제주 역사문화 정체성 확립에 대한 관심을 당부.

오 지사는 “제주도의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이 상반기 중 진행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제주형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가 조성되고 에너지 혁신 정책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

또한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이 성공적으로 치러졌다고 평가한 오 지사는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 과정에서 제주의 역할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국경일 행사에 각별한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

플로깅 활동 전용봉투 지원

○...서귀포시가 새봄을 맞아 건강과 환경보전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플로깅에 참여하는 주민과 여행객에게 플로깅 전용봉투를 적극 지원 중.

시는 2021년부터 자체적으로 플로깅 전용봉투를 제작해 개인이나 단체가 시청이나 읍면동을 방문 신청하면 가연성 전동봉투(10ℓ)를 제공 중인데, 2023~2024년 2년 동안 1만4174개의 봉투를 제공해 수거된 쓰레기는 2만1100kg으로 집계.

시 관계자는 “날씨가 따뜻해지는 이달부터 해안가, 올레길, 오름, 공원 등에서 플로깅 활동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강도 챙기고 깨끗한 서귀포시 만들기에도 일조할 수 있는 플로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강조.

원도심 학교 활성화 대책 지속 추진돼야

학령인구 감소와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제주도내 일부 원도심 학교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원도심 학교 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책이 더디지만 효과가 있다는 소식이다. 적은 인원이지만 신입생과 전학생이 늘고 있다. 좀 더 두고 볼 일이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 수가 급감한 제주북초와 남초, 서귀포초 등 도내 원도심 8개 학교의 활성화를 위해 10년 가까이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역부족인 게 현실이다. 2015년 2036명에서 올해 1690명으로 줄었다. 학교당 100~300명에 지나지 않고 있다. 원도심 지역의 인구 유입은 커녕 인구 유출 속도가 가파르기 때문이다. 다만 제주북초와 서귀초는 통학구역 신축적 운영으로 전·입학 학

생 수가 늘었다. 학교별 특색 있는 교과과정 운영과 제주형 자율학교 지정의 영향도 한몫했다. IB학교로 지정된 제주북초와 글로벌 역량 학교로 지정된 제주남초의 신입생 증가가 대표적 사례다.

정주여건 변화 등 대체는 거스르지 못할 전망이다. 원도심 학교의 작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구 유입이 급증하고 있는 아라동, 외도동, 오동동 등에 학교 신설 예고로 인해 원도심 공동화 현상은 심화하게 된다. 그래도 2016년부터 전개되고 있는 도교육청의 원도심 학교의 교육력 제고 등 대책은 지속돼야 한다. 가시적인 성과가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면서 원도심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도 힘써야 한다. 학생들 통학에 따른 부담은 있지만 학교별 교육으로 승부해야 하는 게 대책일 수 있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고의 맛과 서비스로 고객님의 모시겠습니다.”

만배성 한정식



이학박사 (외식조리관리) 한국조리기능장 양만배

양만배 조리기능장(Master Chef)이 어머니의 손맛처럼 만배(萬倍)로 정성(精誠)을 다하여 마련한 만배성한정식(萬倍誠韓定食)이 색다른 맛으로 보답 하겠습니다.

예약문의 Tel. 712-6800
 제주시 아연로 484-9(아라1동)

양만배 대표님의 이학박사(외식조리관리학) 학위 취득을 축하합니다.

2층 만배성한정식 코스요리(11:00 ~ 21:30)
 상견례, 칠순, 팔순, VIP접대, 각종 연회 및 모임 등을 행사 취향에 맞는 메뉴를 마련하였습니다.



※ 본 사진은 특A코스입니다.

특A(4인미상) : 1인 79,000	B(2인미상) : 1인 49,000
A(2인미상) : 1인 59,000	C(2인미상) : 1인 39,000

주중 점심특선(2인미상) 1인 28,000 도민할인가 - 25,000원

※ 모든 요리에는 갖지은 **즉석가마솥밥**이 제공됩니다.

1층 만배성 밥집 예약취폐 안내

돌잔치 결혼피로연 친목단체 동호회 등 각종연회 세미나를 위한 **업장취폐 및 출장취폐 예약 받습니다.**

메뉴별 가격대(부가세 별도)

₩ 25,000	₩ 35,000
₩ 50,000	₩ 70,000

[메뉴 및 가격은 상담후 조정 가능합니다. (예약문의 : 064)712-6800]

만배성 박스 케이터링 안내

박스 케이터링 A : 1인 35,000 10인 이상 가능함니다.
 박스 케이터링 B : 1인 50,000

